<h1>나 혼자만 레벨업-14화</h1>  
   
  
 <div class="view-img">  
  
</div>  
  
  
  
 <div class="g6014e5c52e">  
  
  
  
   
  
   
  
   
<p>14화</p>  
<p>진우의 머리 위를 넘어갔던 라이칸도 그 광경을 보더니 꼬리를 내리고 주춤주춤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다.</p>  
<p>"허...?"</p>  
<p>이게 근력 올인의 성과인가?</p>  
<p>놀란 진우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을 때, 머리 잃은 라이칸이 다리를 부르르 떨다가 곧 움직임을 멈췄다.</p>  
<p>그러자 익숙한 기계음이 들려왔다.</p>  
<p>띠링.</p>  
<p>[강철 이빨 라이칸을 처치했습니다.]</p>  
<p>[레벨이 올랐습니다!]</p>  
<p>\*\*\*</p>  
<p>"레벨이 올랐다고?"</p>  
<p>잘못 들은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진우가 급히 상태창을 띄워 보았다.</p>  
<p>이름: 성진우</p>  
<p>레벨: 2</p>  
<p>직업: 없음</p>  
<p>칭호: 없음</p>  
<p>HP: 205</p>  
<p>MP: 22</p>  
<p>피로도: 0</p>  
<p>[스탯]</p>  
<p>근력: 32 체력: 11 민첩: 11 지능:11 감각: 11</p>  
<p>(분배 가능 능력치 포인트 : 0)</p>  
<p>[스킬]</p>  
<p>패시브 스킬: (알 수 없음) Lv.MAX, 근성 Lv.1</p>  
<p>액티브 스킬: 질주 Lv.1</p>  
<p>정말로 레벨이 올라갔다.</p>  
<p>그리고 레벨이 올라가면서 모든 스탯에 1포인트가 더해졌다.</p>  
<p>능력치에 영향을 미치는 건 퀘스트 보상만이 아니었다.</p>  
<p>레벨 업을 통해서도 상태창의 능력치를 올릴 수가 있었던 것이다.</p>  
<p>'레벨 업이 가능하다니!'</p>  
<p>일말의 기대만 갖고 있던 일이 눈앞에서 현실이 되었다.</p>  
<p>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.</p>  
<p>'게다가 추가되는 포인트도 레벨 업 쪽이 더 높아.'</p>  
<p>퀘스트 완료 시 받는 능력치 포인트의 총합은 3.</p>  
<p>레벨업을 하고 받은 능력치 포인트의 총합은 5.</p>  
<p>비록 포인트를 마음대로 배분할 수 없다는 점은 불편했지만 레벨 업 쪽의 성장 폭이 훨씬 더 컸다.</p>  
<p>또 퀘스트는 1일에 한 번이라는 제한이 있는</p>  
<p>데 비해 레벨 업은 제한이 없을 가능성이 더 높았다.</p>  
<p>'두 마리를 잡았을 뿐인데 레벨이 올랐다.'</p>  
<p>게임에서도 그렇다.</p>  
<p>레벨이 낮은 구간에서는 단시간에 많은 레벨을 올릴 수 있다.</p>  
<p>현재 진우의 레벨은 2.</p>  
<p>가장 밑바닥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.</p>  
<p>하지만 평범한 저랩은 아니었다.</p>  
<p>이미 근력 스탯이 30을 넘어섰다.</p>  
<p>1업에 근력 스탯이 1씩 오른다고 가정하면, 현재 진우의 근력 수치는 20레벨 이상에 해당했다.</p>  
<p>1레벨 사냥터에서 20레벨대 능력치를 지닌 유저가 사냥한다면?</p>  
<p>'그야말로 폭렙...'</p>  
<p>가정을 증명이라도 하듯 방금 주먹을 휘둘렀을 때의 파괴력은 기대치를 아득히 초월하는 수준이었다.</p>  
<p>'근력 스탯은 세 배 늘었을 뿐이지만... 힘의 차이는 고작 세 배 정도가 아니었어.'</p>  
<p>진우의 원래 근력 스탯은 10.</p>  
<p>근력 10과 근력 30은 수치상으로 세 배의 차이가 나지만 발현되는 힘의 차이는 그 이상이었다.</p>  
<p>'혹시...?'</p>  
<p>능력치가 올라갈수록 가중치가 붙는다면?</p>  
<p>그렇다면 이 파괴력도 충분히 설명된다.</p>  
<p>게다가 움직임도 이전보다 빨라졌다.</p>  
<p>예전 같았으면 전속력으로 덮쳐 오는 짐승의 공격을 가볍게 피한다거나, 주먹을 내지를 때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난다거나 하는 상황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.</p>  
<p>"하긴 근육의 힘이 세지는데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 수가 있나."</p>  
<p>근력 스탯을 높이니 '힘'과 '속도'가 올라간 것이다.</p>  
<p>이는 라이칸들과의 전투로 증명됐다.</p>  
<p>그럼 민첩을 높이면 뭐가 달라지는 걸까?</p>  
<p>호기심을 자극했지만 지금으로서는 알 길이 없었다.</p>  
<p>그걸 알려면 능력치는 직접 올려 봐야 한다.</p>  
<p>'그래도...'</p>  
<p>퀘스트 보상으로 받는 포인트를 민첩에 투자하기엔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.</p>  
<p>근력을 찍으면 힘과 속도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데 뭐하러 민첩에 포인트를 쓴단 말인가?</p>  
<p>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하나.</p>  
<p>'최대한 빨리 레벨을 올린다.'</p>  
<p>레벨 업을 통해 민첩 수치를 올리는 것이다.</p>  
<p>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했다.</p>  
<p>1씩 올리다 보면 언젠가 차이가 느껴지겠지.</p>  
<p>진우는 바닥에 박혀 있던 검을 뽑아 들었다.</p>  
<p>'그럼, 시작해 볼까?'</p>  
<p>아직 잡아야 할 놈이 하나 남아 있었다.</p>  
<p>"그런데... 이 자식 어디 갔어?"</p>  
<p>분명 조금 전까지 근처에 있었던 라이칸 한 마리가 어느 사이엔가 사라져 있었다.</p>  
<p>열심히 주위를 두리번거렸지만 놈의 흔적을 발견하지는 못했다.</p>  
<p>아무래도 상태창을 보고 있는 사이 도망친 모양이었다.</p>  
<p>어쩐지 꼬리를 내리고 이쪽 눈치를 살살 살피더라니.</p>  
<p>"쩝."</p>  
<p>진우는 경험치가 날아갔다는 생각에 아쉬운 듯 입맛을 다셨다.</p>  
<p>그렇게 지나쳐 가려는데.</p>  
<p>'이 녀석들, 마정석 같은 건 안 주나?'</p>  
<p>문득 드는 생각에 걸음을 멈추었다.</p>  
<p>게이트에서 나오는 마수들은 모두 체내에 마정석을 하나씩, 혹은 여러개씩 가지고 있었다.</p>  
<p>운이 좋으면 룬석이 튀어나오기도 했다.</p>  
<p>스킬을 배울 수 있는 룬석은 물론이거니와 여러 용도로 쓰이는 마정석 또한 고가에 거래된다.</p>  
<p>레이드에 나서는 헌터들은 기본 보수 외에 이 마정석을 노리고 사냥에 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.</p>  
<p>진우도 한 명의 헌터.</p>  
<p>사냥을 성공했는데 뭔가 손에 들어오는 게 없으니 섭섭했다.</p>  
<p>아쉬운 마음에 죽은 라이칸의 배를 갈라봤지만 역시 헛수고였다.</p>  
<p>이놈들은 마수들과 완전 다른 부류인 듯했다.</p>  
<p>확실히 여러 던전을 돌아다녀 봤지만 이렇게 늑대와 닮은 마수를 본 적은 없었다.</p>  
<p>손을 털고 일어나려던 진우.</p>  
<p>"음?"</p>  
<p>그런데 라이칸의 입안에서 뭔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다.</p>  
<p>진우는 라이칸의 아가리를 벌렸다.</p>  
<p>라이칸의 이빨 하나가 반짝반짝 빛을 내고 있었다.</p>  
<p>진우가 손을 뻗었더니 이내 메시지가 떴다.</p>  
<p>[아이템: 라이칸의 송곳니]를 발견했습니다. 획득하시겠습니까?</p>  
<p>"획득."</p>  
<p>[아이템: 라이칸의 송곳니]</p>  
<p>입수 난이도: 없음</p>  
<p>종류: 잡동사니</p>  
<p>크고 날카로운 라이칸의 송곳니. 인벤토리에 보관하시거나 상점에 파실 수 있습니다.</p>  
<p>진우는 손안에 들어온 송곳니를 보면서 당황했다.</p>  
<p>'상점도 있었나?'</p>  
<p>세상에 이렇게 불친절한 시스템이 어디 있단 말인가.</p>  
<p>유저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몸으로 겪어 가면서 알아내야만 하는 구조라니.</p>  
<p>심지어 페널티 퀘스트 때는 아무런 설명이 없어서 죽기 직전까지 가기도 했었다.</p>  
<p>진우는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상점을 불러 왔다.</p>  
<p>"상점."</p>  
<p>내심 여느 게임들처럼 '상점' 푯말이 걸려 있고 상인 NPC가 서 있는 가게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했다.</p>  
<p>하지만 허공에 떠오른 것은 처음 메시지함을 열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홀로그램처럼 보이는 녹색 글자들뿐이었다.</p>  
<p>그것도 단 두 단어.</p>  
<p>'구매'와 '판매'.</p>  
<p>"..."</p>  
<p>아주 단조로운 상점이었다.</p>  
<p>진우는 구매를 선택했다.</p>  
<p>주머니에는 땡전 한 푼 없었지만 상점에서 어떤 물건이 거래되는지 궁금해서였다.</p>  
<p>하지만 시스템은 냉정했다.</p>  
<p>[구매를 이용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닙니다.]</p>  
<p>돈이 필요한 곳에서 찬밥 대우받는 경험은 이미 익숙했다.</p>  
<p>"네, 네."</p>  
<p>진우는 대수롭지 않게 판매로 눈을 돌렸다.</p>  
<p>[아이템: 라이칸의 송곳니]를 판매하시겠습니까?</p>  
<p>"그래."</p>  
<p>짤그락 소리와 함께 인벤토리가 떴다.</p>  
<p>인벤토리의 가장 아래쪽, 골드라고 적힌 칸에 20이라는 숫자가 새로이 새겨졌다.</p>  
<p>어제까지만 해도 비어 있던 칸이었다.</p>  
<p>'20골드라.'</p>  
<p>실제 사용할 수 있는 현금도 아니고, 아직 상점을 이용할 수 있는 단계도 아니다 보니 20골드란 게 어느 정도 돈인지 실감이 나지 않았다.</p>  
<p>'하긴 뭐 E급 던전에서 나오는 놈들이 쓸 만한 걸 주겠어?'</p>  
<p>던전과 인던이란 차이는 있어도 그게 그거겠지.</p>  
<p>그래도 혹시 모르니 다른 놈의 이빨까지 챙겨 가려던 진우가 아차 하며 이마를 짚었다.</p>  
<p>"머리통을 아예 날려 버렸지..."</p>  
<p>진우는 씁쓸한 마음으로 방향을 꺾었다.</p>  
<p>가치도 모르는 20골드가 눈에 아른거렸지만 이 어두컴컴한 지하에서 어디로 날아갔을지 모르는 짐승 이빨을 찾기 위해 시간을 허비할 수는 없었다.</p>  
<p>하지만 돌아서는 순간, 그런 아쉬움이 눈 녹듯 사라졌다.</p>  
<p>"크르르르릉."</p>  
<p>"크르르르."</p>  
<p>"크르르르륵!"</p>  
<p>"크륵!"</p>  
<p>도망간 줄 알았던 라이칸 한 마리가 동료들을 잔뜩 데리고 온 것이 아닌가!</p>  
<p>진우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났다.</p>  
<p>언뜻 보아도 20마리 이상은 되어 보였다.</p>  
<p>"유레카!"</p>  
<p>아니, 이럴 때 쓰는 단어는 아니던가?</p>  
<p>뭐 어쨌든.</p>  
<p>기쁜 마음을 표현하는 말임은 분명하니까.</p>  
<p>진우는 검의 손잡이를 단단히 움켜 쥐었다.</p>  
<p>"송곳니 빼고 아주 다 씹어 먹어 주마."</p>  
<p>돈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한 남자의 살벌한 눈빛에 라이칸들이 겁을 집어 먹고 움찔 몸을 떨었다.</p>  
<p>그 순간 진우가 녀석들을 향해 날아올랐다.</p>  
<p>\*\*\*</p>  
<p>[레벨이 올랐습니다!]</p>  
<p>[레벨이 올랐습니다!]</p>  
<p>[레벨이 올랐습니다!]</p>  
<p>예상대로 레벨은 금방금방 올라갔다.</p>  
<p>1층을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라이칸들을 몰살시킨 진우는 순식간에 7레벨이 되었다.</p>  
<p>무려 다섯 계단이나 점프한 것이다.</p>  
<p>"깨갱!"</p>  
<p>꼬리를 감추고 도망가던 마지막 놈을 잡자 이상한 메시지가 떴다.</p>  
<p>띠링.</p>  
<p>[칭호: 늑대 학살자]를 획득했습니다.</p>  
<p>"칭호?"</p>  
<p>[칭호: 늑대 학살자]</p>  
<p>늑대를 잡는 데 능숙한 사냥꾼에게 주어지는 칭호입니다. 짐승형 몬스터를 상대할 때 모든 능력치가 40% 증가합니다.</p>  
<p>상태창을 열어 보니 과연 칭호가 바뀌어 있었다.</p>  
<p>이름: 성진우</p>  
<p>레벨: 7</p>  
<p>직업: 없음</p>  
<p>칭호: 늑대 학살자</p>  
<p>HP: 766</p>  
<p>MP: 81</p>  
<p>피로도: 3</p>  
<p>[스탯]</p>  
<p>근력: 37 체력: 16 민첩: 16 지능:16 감각: 16</p>  
<p>(분배 가능 능력치 포인트 : 0)</p>  
<p>[스킬]</p>  
<p>패시브 스킬: (알 수 없음) Lv.MAX, 근성 Lv.1</p>  
<p>액티브 스킬: 질주 Lv.1</p>  
<p>짐승형 몬스터를 상대할 때 추가 능력치 보너스라.</p>  
<p>대상이 한정적이기는 해도 능력치가 40퍼센트나 상승한다니 꽤나 괜찮아 보였다.</p>  
<p>'짐승형 마수도 많은데 놈들한테도 적용되려나?'</p>  
<p>그렇게만 된다면 레이드 때 마수들을 손쉽게 처치할 수 있을 텐데.</p>  
<p>하지만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아도 소득은 짭짤했다.</p>  
<p>'늑대 이빨이 34개, 낡은 단검이 두 개, 여행자의 옷이 하나, 귀환석이 하나.'</p>  
<p>늑대를 잡다 보니 늑대 뱃속에서 아이템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다.</p>  
<p>그러나 쓸 만한 것들은 아니었다.</p>  
<p>낡은 단검은 지금 쓰는 강철검보다 공격력이 떨어졌고, 여행자의 옷은 착용 아이템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상점 되팔이용 잡템이었다.</p>  
<p>모두 상점에 처분했더니 천 골드가 넘게 들어왔다.</p>  
<p>[보유한 금액: 1,060골드]</p>  
<p>'...라고 해도 전혀 기뻐할 수가 없네.'</p>  
<p>아무리 모아 봐야 당장은 쓸데가 없으니 말이다.</p>  
<p>골드를 제외하면 남는 거라곤 귀환석 하나뿐.</p>  
<p>아까 던전 입구에서 탈출하려고 몸부림칠 때, 바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귀환석이 필요하다고 했었다.</p>  
<p>이제 마음만 먹으면 다시 밖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.</p>  
<p>여기서부터는 갈림길이었다.</p>  
<p>눈앞에 지하 2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보였다.</p>  
<p>그리고 손에는 귀환석이 쥐여 있었다.</p>  
<p>'전진이나, 후퇴냐...'</p>  
<p>예전 같으면 망설임 없이 다음을 기약했을 것이다.</p>  
<p>그랬기에 형편없는 능력치로도 많은 레이드에서 비교적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었다.</p>  
<p>남들은 기적이라 말하지만 나름대로 영리하게 움직였던 결과였다.</p>  
<p>하지만 지금은 달랐다.</p>  
<p>돌아서고 싶지 않았다.</p>  
<p>여기서 발을 빼면 다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.</p>  
<p>"후퇴는 지겹도록 해 봤으니."</p>  
<p>한 번쯤은 부딪혀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.</p>  
<p>진우는 귀환석을 도로 주머니 속에 집어넣었다.</p>  
<p>지하 2층으로 내려가는 발걸음은 가벼웠다.</p>  
  
 </div>  
  
  
  
 </div>  
  
  
  
 <div style="margin-top: 20px;">  
  
 <style>